

이 없으시다며 “ 요즘같은 여름은 일찍 일어나 출근해도 좋지만 겨울에는 좀 힘들다 ”고 하셨습니다.

“ 항장님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 하시렵니까 ” 하는 질문에 “ 4남1녀를 둔 자녀들이 이제 모두 장성하여 잘살고 있어서 탄광일은 그만 하라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고 생활의 낙(樂)이 없을 것 같기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하고 싶다 ”고 하신다. 그동안 같이 일해 온 동료들은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논밭도 사고 그런대로 편히 살고 있지만 항장님은 자녀들 교육시키시느라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자식들 자랑을 은근히 하신다. 장남, 차남은 대학나와 결혼하여 자기들 생활을 따로하고 있고 세째도 ROTC 장교로 복무중이며 막내는 광주 J의대에 재학중이라 하여식이 하나 있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되어 걱정이 되신다며 은근히 딸자랑을 하시고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집에서 신부수업을 하고 있으니 좋은데 있으면 중매까지 잊지 않으시고 부탁하십니다. 주위에서는 고생하여 번 돈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봤자 다 쓸데 없고 건강이 중요하니

우선 먹는데 아끼지 말라는 말을 들을때도 많았지만 모든 식구들이 모두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하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공부시키는 것이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 공부시켰는데 다들 공부도 잘해줘서 피곤한줄 모르고 일해 오셨단다. 조그마한 체구에 단아한 얼굴에서 풍기는 인자하신 모습과 인생의 거의 전부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희생정신, 어찌면 안팎의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항장님은 지나간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절대 후회는 해본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탄광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사셔서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하고 싶으시다는 근면의 의지와 자녀들을 위한 아낌없는 희생의 헌신과 장래를 지혜롭게 염려해주시는 자녀사랑 그리고 한길만을 고집하며 힘차게 달려오셔서 인생을 승리하신 멋쟁이 항장님의 앞날에 끝없는 전진과 소원하시는 결실 맺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때 무거웠던 마음은 어느덧 저하늘 멀리 사라지고 나의 빈 주먹은 불끈 쥐어 있었다.

협회소식

협회 직원 인사

○ 황우익 (서울지부, 센타소장 임명) ○ 박성남 (전남지부, 센타소장 임명) ○ 김영갑 (본부, 사업국장 임명) ○ 김태호 (본부, 교육훈련과장 임명) ○ 김병곤 (전북지부, 사무국장 직무대리 임명) ○ 김창일 (서울지부, 관리과장 임명) ○ 임승철 (대구경북지부, 관리과장 임명) ○ 정채권 (대구경북지부, 건강 관리과장 임명) ○ 임시우 (충남지부, 관리과장 임

명) ○ 맹성호 (충남지부, 산업위생과장 임명) ○ 박상용 (충남지부,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임명)

조규상 회장

WPACMR 會議 참석하고 귀국

본 협회 조규상 회장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WPACMR (서태평양 지구 의학연구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후 일본 노동성과 산업안전위생협회를 방문하여 본 협

회 기술협력지원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3월 19일 귀국하였다.

WPACMR 회의에서 조회장은 아세아에 있어서의 산업보건 연구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동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되었는데 때를 같이하여 5월에 Geneva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도 産業保健이 의제로 채택되었다고 EI Batawi 박사로부터 연락이 있었다고 한다.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86년도 정기총회 개최

○ 86년도 특기협 정기총회가 3.7일 서울 팔래스 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31개 특수검진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금년도 총회에서는 특기협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은 물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적향상을 통한 근로자 건강증진 기여 방안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다.

○ 특히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 검진방법의 공동개발
— 기장비 및 행정서식 공동구매
— 해외 및 국내연구자료 공동활용
— 특수검진에 종사하는 기술직원 연수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개선안들이 제시되어 특기협을 중심으로 한 공동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 이 밖에도 특기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감사제도를 두어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서울지부 중앙산업 보건센터 이전

○ 본 협회 서울지부(지부장 남택승) 중앙산업보건센터가 86년도 특수검진지역 변경에 따라 노동부 남부지방사무소(영등포지역) 관내에서 관악지방사무소(구로구 지역) 관내로 이전케 되어 그간 공단의원으로 운영되어온 대지 183평, 건평 160평 규모의 동 의원을 3.20 매입하여 서울지부 산업보건센터로 개설하

○ 공단의원은 황우익 원장이 17년전 구로공단에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동 지역 2단지내에서 개설하여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맡아온 산실로서 의원개설 목적과 건물의 역사적 의미도 깊은 장소이다.

○ 특히 서울지부는 정부의 산업보건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장 밀집 및 공단지역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건강관리 하기 위해 집단보건관리체제로 운영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체제 보완과 시설을 일부 보수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 센타 건물의 보수가 완료되는대로(4.15일 예정)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며 더우기 구로공단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연구소와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산학협동의 시범 케이스로 연구발전시킬 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다.

황우익박사, 서울지부 산업보건센터소장으로 임명

○ 협회는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보건관리체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단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동안 건강관리 업무를 맡아온 황우익 박사(전 공단의원 원장)를 서울지부 센터소장으로 3.21일 발령하였다.

○ 황소장은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오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과 근로자 건강상황 등 공단지역 보건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적임자이며, 또한 근로자를 위한 의료인으로서 여생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겠노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86, '88 서울올림픽 홍보활동전개

당 협회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 협회 임직원 및 회원을 비롯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86. '88대회 홍보표어와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고 프랑카드를 설치하여 온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히도록 하였다.